



임래금작 '여름'



고영종작 '블루의 시간 II, 채석강에 가면'

희망 찾아 행복 찾아 함께 떠나는 그림 여행

그림을 사랑하는 모임 동행 '같이가기'展

28일까지 금호갤러리...13명 회원 참여

삶의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며 함께 그림 그리는 이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림을 사랑하는 모임 동행의 열다섯 번째 전시 '같이가기'전이 오는 28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동행'의 본격적인 활동은 10여년 전 서양화가 고영종 작가의 무료 그림 지도로 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술교사였던 고 작가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그림 공부를 도왔다.

그렇게 10년째 '동행'에서 그림 지도를 이어온 고 작가는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자택에 마련된 작업실 공간을 회원들에게 제공, 미술 이론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현주작 '바닷가 해당화'

행하고 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13명의 그림은 추상화부터 수채화까지 다양하다. 풍경, 인물, 팝아트 등 자신이 평소 그려보고자 했던 그림이면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다.

고 작가는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인 '동행' 회원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모임은 제가 이끌어간다기보다는 각자의 삶에서 얻은 느낌이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배움의



그림을 사랑하는 모임 '동행' 활동 모습.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이들은 고 작가를 비롯해 나현주·문점례·문희숙·민순·박종애·이은주·이인자·이인정·임래금·임재운·임지예·최영란 13명으로, 아름다운 꽃이나 마을 풍경, 숲 속 그리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자연 등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림들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완벽한 그림이 아닌 행복한 그림을 지향하는 모임 '동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작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영종 작가는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완성해낸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위안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자연과 나누는 고귀한 대화... '헤집어 본 한 살이'



리정훈 시인 제3시집 발간

자연을 통한 상처의 치유를 시인만의 소박한 언어로 담아낸 책이 발간됐다.

리정훈(사진) 시인의 제3시집 '헤집어 본 한 살이'(서적판)다.

리 시인은 마음 한 켠에 쌓아 둔 영혼의 푸른 빛 같은 좋은 시편들을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리라, 만날 시간은 있으리라 기대하며 시의 먼 길을 걸어왔다.

시집은 ▲1부 빛을 찾아 가리 ▲2부 아

산아 무등산아 ▲3부 헤집어본 한 살이 ▲4부 현실이야기 ▲5부 마음의 틀 ▲6부 시공간 속에서 ▲7부 영혼의 부름 ▲8부 우주 속의 나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특히 태양과 우주, 시간, 현실, 인생 등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연을 끌어안은 주제별 작품은 구체적 장소의 풍경과 지명을 호명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이끈다.

리 시인의 시를 읽는 독자들은 친근하게 시에 접근하지만 오랫동안 고독한



사유의 시간을 지난 연륜의 깊이를 접하게 된다. 편안하나 흐름이 때끄러운 시집을 통해 시인의 시작 미래와 시의 힘을 기대한다.

한편, 리정훈 시인은 광주사범과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중등 46년 근무 후 퇴임했다. 현재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광주문인협회이사, 한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ACC, 메타버스 체험공연

'비비리' 서울서 펼쳐진다

22-24일 성북구립 글빛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성북구립 글빛도서관에서 ACC 융·복합 콘텐츠 '비비리: 출발! 타이탄 지구 탐사대'를 선보인다.

'비비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탈놀이를 기반으로 창작한 이야기에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한 메타버스 체험 공연이다.

국내 최초 실감 라이브 공연 장르는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비비리'는 2020년 시범공연을 거쳐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정식 공연됐다.

이 작품은 고성오광대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우리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션 캡처, 페이스 캡처 등 실감기술 분야 전문 업체의 참여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VR체험만 가능했던 기존 콘텐츠에 XR(확장현실) 스테이지와 실제 배우의 연기를 더해 한 단계 진보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다.

사회적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주제로 하는 '비비리' 공연은 LED 스크린 배경에 전문 연극배우가 참여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 2시와 4시 총 6회 진행되며 체험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뤄진다. 공연 및 체험은 무료이며, 참여신청은 성북구립 글빛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ACC가 주최하고 ACC재단과 성북문화재단, (주)디아랩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최명진 기자

지역 유희공간, 문화예술 숨결로 재탄생

전남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활용 사업 성과

전남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역 곳곳의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 사업 공간을 지정하는 '공간 지정형 사업'과 예술단체가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 공간을 발굴하는 '공간 발굴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난 5월 수행단체를 공모했다.

재단은 도내 22개 시·군 및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사업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심의 결과 6개 시군(목포, 순천, 보성, 장흥, 장성, 신안) 8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단체는 목포 '노라노 미술관', 목포 '아티스트 한창때', 순천 '주식회사 풍선검', 보성 '에펠무지코', 장흥 '문화공간 예음', 장성 '징소리', 신안 '문화예술 기획사 고리', 신안 '문화예술 기획단 썸'이다.

'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역·공간을 반영한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발굴형 지원 단체 목포 '아티스트 한창때'의 연극공연 모습

생활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역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다.

이들 단체가 진행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로 유희공간 재활용 및 다양한 문화예술 시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문화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장이 됐길 바란다"며 "도내에는 문화시설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차후 많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